

# 대학생들의 전공선택동기와 자격증 취득의향 간의 관계 및 자격증 활용가치 인식의 영향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자격증을 중심으로-

조승아\*

대구가톨릭대학교 국제의료경영학과

## The Relationship between University Students' Major Selection Motivation and Intention to Acquire Certificates and the Influence of Recognition of Value Using Certificate-Focusing on the Health and Medical Information Manager Certificate

Seung-A Cho\*

Department of international Healthcare Management, Daegu Catholic University

### 요약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전공선택 동기와 자격증 취득의향과의 관계, 그리고 자격증 취득의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행되었다. 특히 본 연구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자격증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학과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전공선택 동기 중 사회적 동기만 자격증 취득의향에 영향을 미쳤으며 둘째, 사회적 동기만이 자격증 활용가치 인식에 영향을 미쳤다. 셋째, 전공선택 동기와 자격증 취득의향 간의 관계에서 자격증 활용가치 인식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보건의료계열 관련 학과의 경우 취업 등 사회적 동기가 전공선택이 강한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의향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향후 학과는 입시 및 교육 과정에 있어 자격증 취득의 중요성과 구체적 방안 등에 대한 꾸준한 지도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students' motivation to choose a major and their intention to acquire a certificate. As a result of the study, only social motivation among the motives for choosing a major influenced the intention to obtain a certificate. Second, only social motivation influenced the perception of the value of using certificates. Thir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otivation for choosing a major and the intention to acquire a certificate, the perception of the value of using a certificate did not affect.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this study confirmed that in the case of departments related to health and medical fields, students with strong social motivation such as employment have a high willingness to obtain certificates.

### Key Words

Health and Medical Information Manager, Intention Obtain a Certificate, Major Selection Motivation, Certificate Utilization Value Recognition

## 1. 서론

최근 우리 사회의 경기불황과 구직의 어려움은 청소년들의 대학 진학 시 전공선택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은 대학

진학의 주요 이유가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가 46.7%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1]. 또한, 대학 입학 후 학생들은 다시 이른바 '스펙쌓기'라 불리는 구직경력 준비에 몰두하면서[2], 진로에 대한 좌절과 갈등으로 대학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

\*Corresponding Author : Seung-A Cho(Daegu Catholic Univ.)

E-mail: vaggio10@daum.net

Received Aug 13, 2022

Revised Sep 02, 2022

Accepted Oct 15, 2022

왔다[3].

이처럼 본인의 적성에 맞지 않는 전공선택과 구직준비에만 내몰린 대학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이 많아지면서 연구자들의 전공선택 동기에 관한 연구가 늘어나고 있다. 전공선택 동기에 대해 연구자들은 크게 내재적 요인과 외재적 요인으로 나누고 있는데, 자신의 흥미나 관심도 등 내재적 요인을 중시하여 전공을 선택하는 경우보다 사회적 지위나 성역할 등 외재적 요인을 중심으로 선택하는 경우 대학생활 적응 과정에 어려움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4].

대학생들의 전공 선택 동기를 파악하는 것은 학교생활과 전공 적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고 학교 만족도를 높이는데 큰 공헌을 할 수 있다[5]. 또한,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직무 일치도가 증가되었으며 취업 성과 역시 좋았다[6]. 즉 전공교육과 취업을 원하는 직장의 직무가 일치될수록 취업 준비가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7].

한편 대학생들은 최근 노동시장에서 자격증 취득을 통해 학력을 보완하고 취업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인력을 양성하고 공급하는 대학 역시 학생들에게 자격증 취득을 확대를 위한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고 있다[8-9]. 즉 자격증 취득이 대학생들의 중요한 진로 준비행동의 일환이 되고 있어 대학들의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과 훈련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보건의료계열의 경우 타 전공에 비해 취업률이 높은 편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의 '2020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연보'에 따르면 대학 졸업 후 전체 취업률은 65.1%에 그쳤으나 의약계열은 82.1%의 높은 취업률을 보였다[10]. 이는 의학, 한의학, 약학과 같이 취업률 90%를 넘는 모집단위들의 영향이기도 했지만, 보건학(75.6%), 재활학(80.1%) 등의 전공 역시 높은 취업률을 보였다[11]. 따라서 의약계열 학생들의 전공선택 시 본인의 적성보다는 취업 등 외재적 요인이 영향을 크게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보건의료계열 학과들의 경우 관련 자격증 취득을 위해 보건복지부의 인증을 받은 학과에 입학해 필수 교과목들을 이수해야 자격증 취득 자격

을 얻을 수 있으며, 자격증 취득이 취업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입학 후 학교생활과 전공에 적응하지 못한 경우 자격증 취득을 포기하게 되면 학생들의 취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그 중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경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8종[12] 중 유일하게 인문사회계 전공 학생들이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이다. 따라서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관련 학과인 보건행정, 의료경영 등의 전공을 선택한 인문사회계 학생들이 많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정보 관련 18개 교과목을 이수해야 하는데 해부생리학, 병리학 등 인문사회계 학생들에게 어려운 교과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자격증을 취득을 위해 입학하였음에도 중도에 자격증 취득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보건의료정보관리사에 응시할 수 있는 학과는 2022년 8월 25일 기준 134개인 반면 [13], 응시인원은 2021년 기준 3,305명[14]으로 한 학교 당 응시인원이 20여명 정도이고 졸업생 등을 포함하면 한해 한 학교의 응시인원은 더 적다고 볼 수 있다.

즉, 취업률이 높고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관련 전공을 선택한 학생들이 적성에 맞지 않아 취업 준비행동의 일환인 자격증 취득에 대한 의향이 낮아지거나 없어질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학의 입장에서 학생들의 전공선택 동기와 자격증 취득의향과의 관계, 그리고 자격증 취득의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파악한다면 효과적인 자격증 준비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보건의료계열 관련 연구는 간호학 등 일부에만 치우쳐 있고[15-17],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관련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연구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공선택 동기와 면허 취득의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여 학생들의 학교 생활 및 취업지도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 2. 이론적 배경

### 2.1 전공선택 동기

대학에서 전공을 선택하는 것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 중 하나이며, 사회에 진출하기 전 자신의 능력을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행위이다[18]. 이러한 전공선택의 중요성으로 인해 전공선택 시 학생들은 전공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 전공에 대해 이해하여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전공을 선택하게 되는데 자신의 개인적 특성(적성과 흥미, 재능)과 사회적 인식이나 직업에 관한 전망, 주변 지인의 권유, 입학성적 등 전공을 선택하게 된 원인을 전공선택 동기라고 정의할 수 있다[19].

기존 연구자들의 전공선택 동기 요인을 살펴보면, Nam은 적성과 흥미에 맞아서, 성적에 맞아서, 부모나 교사의 권유 등 3개의 변수로 구분하였다. 또한, Ryan et al.과 Song은 대학생의 전공선택 동기 요인을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로 구분하고 있는데, 내재적 동기에는 자신의 적성, 소질, 흥미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외재적 동기에는 부모, 선생님, 또래 집단 인기, 성적 등을 꼽았다[20-21]. Lee의 연구에서는 전공선택 동기를 능동적 선택과 수동적 선택으로 나누어 검증하였고[22], Jin et al.과 Shin et al.의 연구에서도 전공선택 동기를 개인적 동기와 사회적 동기로 보았다[7][17].

전공선택 동기에 대한 연구가 중요한 이유는 전공선택 동기가 전공 만족과 직업선택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7][23]. 즉 전공 선택 시 적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선택할 때 이에 따른 부정적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Han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동기로 전공을 선택한 학생들 보다 개인적 동기로 전공을 선택한 학생들이 전공이 자신의 적성이나 흥미, 재능, 장래직업과 일치하기 때문에 전공의 교과내용에 흥미와 가치를 느끼게 되면서 전공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게 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만족스러운 학점취득과 학교생활, 그리고 교수와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한다고 보았다[24].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본인의 적성보다 부모님이나 주변인의 영향, 또는 학교 성적에 맞춰 전공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고[25], 이러한 경우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전공선택에 불만을 가지게 되고, 이런 불만이 쌓이게 되면 전공에 대한 확신 부족과 학교생활의 부적응으로 취업에 대한 준비도 역시 떨어질 수 밖에 없다[26].

즉 대학생들의 전공선택 동기를 파악하는 것은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고 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적절한 취업 준비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연구가 필요하다.

### 2.2 자격증 취득의향 및 활용가치 인식

자격의 개념에 대해 OECD(2007)는 개인이 평가 과정이나 학업과정의 성공적인 이수를 통해 구체적인 표준에 맞는 지식과 기술, 역량을 습득하였고 유관기관이 판단할 때 주어지는 것이라 하였다[27]. 자격제도는 크게 국가기술 자격제도와 민간기술 자격제도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 국가기술 자격제도는 고용노동부가 국가 기술자격법령 및 제도 운영 총괄을 맡고 있으며, 민간자격은 국가 외 개인·법인·단체가 설립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을 말하며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다[28].

자격증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자격증 취득 동기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어져 왔는데, 크게 성취동기이론, 내재동기이론 및 자기결정이론 등이 있다. 성취동기 이론이란 목표지향적인 행동이 본격화되고 유지되는 과정이 자격증 취득 동기가 되며, 내재동기 이론은 개인의 관심, 자신의 능력 발휘, 도전하고 성취하려는 타고난 성향이 동기가 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기결정이론이란 목표에 대해 가질 수 있는 마음이나 의지로 자발적으로 자격증 취득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다[20].

의향은 무엇을 하려는 의지 또는 의사를 의미하며 [29], 자격증 취득은 취업준비행동의 일환이라는 점에서[30] 자격증 취득의향은 취업을 위해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의지 또는 의사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 자격증 취득의향과 관련한 직접적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지만, 학생들의 전공선택 동기와 전공 만족도, 진로준비행동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꾸

준히 진행되어 왔다. 자격증 취득 및 준비행동이 진로준비행동의 일환[30]이라는 점에서 전공선택 동기는 자격증 취득의향과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 선행연구에서 자격증 취득동기는 전공만족도와 전공몰입, 진로준비행동 등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24][26].

또한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의향에는 전공선택 동기 외 자격증 활용도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채용 시 또는 졸업 후 자격증의 활용 가치가 높다고 인식하면 자격증 취득 과정에 중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관련 과정을 이수하여 자격증 취득의향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자격증 활용가치에 대한 Hong et al.의 연구에서 자격증 활용가치를 ‘채용 시 활용가치’ 6 문항(취업의 질 영향, 도전 가능 취업 분야 확대, 관련 분야로의 취업에 유리, 채용 시 추천 기회 확대, 채용 시 자격증 취득자 유리, 채용 결과에 영향)과 ‘입사 후 활용가치’ 3문항(연봉 협상에 유리, 다른 분야로의 낮은 이직, 한 분야에서의 탁월한 업무 역량)으로 구성하여 연구하였다[31].

### 3. 연구설계 및 방법

#### 3.1 연구가설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진로 선택동기와 자격증 취득의향 간의 영향관계를 검증하고, 자격증 활용가치 인식의 영향 효과를 확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전공선택 동기는 전공 만족과 직업선택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고[7][23], 전공선택 동기는 취업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4]. 자격증 취득의향이 취업 준비행동의 일환이라는 점에서[30] 전공선택 동기는 자격증 취득의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학생들이 인식하는 자격증의 활용가치 인식에 따라서 자격증 취득의향이 달라질 것이다[31].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3개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전공선택 동기는 자격증 취득의향에 영

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전공선택 동기는 자격증 활용가치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전공선택동기와 자격증 취득의향 간의 관계에서 자격증 활용가치 인식이 매개 효과가 있을 것이다.

#### 3.2 측정문항의 구성

본 연구의 주요 측정 개념을 전공 선택동기, 자격증 취득의향, 자격증 활용가치 인식으로 설정하였다.

측정 문항으로는 첫째, 전공선택 동기는 전공 자신의 진로와 부합하는 전공을 선택하는데 고려되는 기준으로 선행연구를 토대로 개인적 동기(적성에 맞아서, 성적에 맞춰서, 주변에서 권유하여서)와 사회적 동기(전공이 유망해서, 취업에 도움이 되어서)에 해당하는 5가지 항목으로 구성하였다[7][17]. 둘째, 자격증 취득 의향은 재학 중 관련 학점을 이수하여 자격을 갖추고 국가시험에 응시할 계획이 있는지를 측정하였다. 셋째, 자격증 활용가치 인식은 채용 시 및 취업 후 자격증이 얼마나 가치있게 활용될 것인지에 대한 인식으로 Hong et al.의 연구를 토대로 채용 시 활용가치와 입사 후 활용가치 9문항으로 구성하였다[31].

#### 3.3 조사대상 및 방법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대구와 경북의 3개 대학의 관련학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설문조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작성하여 각 학교 학과 교수님께 전달하여 해당 학생들을 대상으로 10일간(2022년 5월 10일부터 5월 20일까지) 실시되었다. 학교당 학생수를 고려하여 30부에서 50부씩 총 13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총 117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며, 회수된 설문지 모두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은 SPSS WIN 22.0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표본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빈도분석과 측정항목의 신뢰도와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신뢰도 분석 및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후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과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 4. 연구결과

### 4.1 일반적 특성

표본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 [Table 1]과 같다. 성별은 인문사회계 학과의 특성상 여학생이 96명으로 79.9%였고, 남학생은 21명으로 20.1%였다. 학년은 1학년 21명(22.0%), 2학년 31명(43.1%), 3학년 33명(14.6%), 4학년 32명(29.3%)으로 학년별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다. 희망 취업분야는 보건의료정보관리 분야가 47명(40.2%)으로 가장 많았고 병원 경영 및 행정 분야가 31명(32.9%), 병원 홍보 및 마케팅 분야 10명(7.3%), 보건의료 공무원 및 공공기관이 27명(18.9%)으로 나타났다는데,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 있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취업이 유리한 보건의료정보관리 분야의 취업 희망분야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표 1] 일반적 특성

	Variable	N	%
gender	male	21	20.1
	female	96	79.9
grade	first	21	22.0
	second	31	34.1
	third	33	14.6
	fourth	32	29.3
desired employment area	Health and medical information management	47	40.2
	hospital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31	32.9
	Hospital Publicity and Marketing	10	7.3
	Healthcare officials and public institutions	27	18.9
	general enterprise	2	0.6
total		117	100.0

### 4.2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전공선택 동기와 자격증 활용가치 인식의 타당

도 검증을 위해 주성분 분석방법과 Varimax를 활용한 직교회전 방식을 사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 [Table 2]와 같다.

[Table 2] Exploratory factor analysis results and Cronbach's alpha

[표 2]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Variable			Factor loading	Eigen value (%)	$\alpha$
major selection motivation	social	promising major	.875	2.496 (49.925%)	.880
		advantageous job	.854		
Certificate Utilization Value Recognition	personal	surroundings advice	.828	1.068 (21.357%)	.607
		adjusting grade	.825		
		adjusting aptitude	.741		
		quality of employment	.908		
		expansion employment sector	.862		
		employment in related fields	.866	6.663 (74.031%)	.954
		recommended opportunity	.869		
		advantageous recruitment	.908		
		advantageous recruitment results	.862		
		advantageous salary	.789	6.663 (74.031%)	.954
		expansion job turnover	.877		
KMO=.668, Bartlett's $\chi^2=120.813(df=10, p=.000)$					
KMO=.934, Bartlett's $\chi^2=662.201(df=36, p=.000)$					

전공선택 동기와 자격증 활용가치 인식의 KMO 값은 각각 .668과 .934로 변수 쌍들의 상관관계가 다른 변수에 의해 잘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분석의 적합성을 보여주는 Bartlett 구형성 검정치는 카이제곱값이 각각 120.813과 662.201로 모두 유의수준이 .000으로 나타나 요인분석 사용이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고유값이 1.0 이상인 요인에 한하여 요인적재량 0.5 이상인 항목들을 기

준으로 했을 때 전공선택 동기는 2개 요인으로, 자격증 활용가치 인식은 1개 요인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전공선택 동기의 2개 요인을 ‘사회적 동기’와 ‘개인적 동기’로 명명하였다. 전공선택 동기의 총 분산설명력은 각각 49.925%와 21.357%이었으며, 자격증 활용가치 인식의 분산설명력은 74.031%로 나타났다.

측정도구의 크론바하  $\alpha$  계수값은 전공 선택동기 중 사회적 동기가 .880, 개인적 동기가 .607로 나타났다, 자격증 활용가치 인식이 .954로 나타나 모두 신뢰도가 확보되었다.

### 4.3 가설검증

#### 4.3.1 전공선택 동기가 자격증 취득의향에 미치는 영향(가설 1)

전공선택 동기가 자격증 취득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사회적 동기는  $\beta=.418(p=.000)$ 로 자격증 취득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개인적 동기는  $\beta=-.155(p=.134)$ 로 자격증 취득의향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았다.

[Table 3] Results of the hypothesis 1 verification

[표 3] 가설1 검증결과

variable	B	S.E	$\beta$	t	R <sup>2</sup>
social motivation	.363	.089	.418	4.067**	
personal motivation	-.135	.089	-.155	-1.514	.199

\*\* : p<.001, \* : p<.005

#### 4.3.2 전공선택 동기가 자격증 활용가치 인식에 미치는 영향(가설 2)

전공선택 동기가 자격증 활용가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역시 사회적 동기의 경우 자격증 활용가치 인식에  $\beta=.444(p=.000)$ 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개인적 동기의 경우  $\beta=-.135(p=.193)$ 으로 자격증 활용가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았다.

[Table 4] Results of the hypothesis 2 verification

[표 4] 가설2 검증결과

variable	B	S.E	$\beta$	t	R <sup>2</sup>
social motivation	.421	.098	.444	4.312**	
personal motivation	-.130	.099	-.135	-1.314	.217

\*\* : p<.001, \* : p<.005

#### 4.3.2 전공선택 동기와 자격증 취득의향간의 관계에 자격증 활용가치의 매개효과(가설 3)

전공선택 동기 요인 중 사회적 동기만이 자격증 취득의향과 자격증 활용가치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사회적 동기와 자격증 취득의향 간 관계에 자격증 활용가치 인식의 매개효과만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 [Table 5]와 같다. 첫째, 사회적 동기는 자격증 활용가치 인식에  $\beta=.446(p=.000)$ 으로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사회적 동기는 자격증 취득의향에  $\beta=.418(p=.000)$ 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독립변수인 사회적 동기와 매개 변수인 자격증 활용가치 인식을 동시에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격증 활용가치 인식이 자격증 취득의향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고, 사회적 동기만이  $\beta=.351(p=.003)$ 로 유의하였다.

하지만 2단계의  $\beta$ 값이 1단계  $\beta$ 값보다 크지 않고, sobel test 결과 역시  $z=1.397$ 로 +1.96보다 크거나, -1.96보다 작지 않아 자격증 활용가치 인식의 매개변인의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Table 5] Results of the hypothesis 3 verification

[표 5] 가설3 검증결과

	dependent	independent	$\beta$	B	S.E	t	R <sup>2</sup>
1	Utilization Value	social motivation	.446	.423	.098	4.311**	.199
		personal motivation					
2	Intention Obtain	social motivation	.418	.363	.090	4.034**	.174
		personal motivation					
3	Intention Obtain	social motivation	.351	.303	.100	3.032**	
		Utilization Value	.170	.155	.105	1.471	.205

\*\* : p<.001, \* : p<.005

## 5.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전공선택 동기와 자격증 취득 의향과의 관계, 그리고 자격증 취득 의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자격증 준비 방안을 마련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자격증 중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자격증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관련학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공선택 동기가 자격증 취득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가설 1의 검증 결과 사회적 동기는 자격증 취득의향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개인적 동기는 자격증 취득의향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전공선택 동기가 취업 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와 일부 일치하는 결과이나[24], 개인적 동기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차이가 있었다. 이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자격증의 특성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인증받은 학과에 입학하여 필수 이수과목을 모두 이수하여야 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따라서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유망하고 취업에 유리한 사회적 동기로 입학을 한 경우가 많을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 동기가 자격증 취득의향에 영향을 미쳤으나 반면 주변의 권유나 성적 등 개인적 동기는 자격증 취득의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전공선택 동기가 자격증 활용가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가설 2 역시 사회적 동기만이 자격증 활용가치 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가설 1과 마찬가지로 보건의료정보 분야로의 취업을 위해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사회적 동기가 자격증 취득 의향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전공선택 동기와 자격증 취득의향 간의 관계에서 자격증 활용가치가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가설 3의 경우 자격증 활용가치의 매개효과를 유

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제시할 수 있는 학문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건계열 학과의 경우 입학동기가 사회적 동기인 경우 자격증 취득 의향에 영향을 미친다는 차이점을 규명하였다. 일반학과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보통 사회적 동기와 개인적 동기 모두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거나[7][23], 개인적 동기만이 영향을 미치는 경우[24]가 많았는데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인증받은 학과에 입학해야 하는 보건계열 학과의 경우 사회적 동기가 자격증 취득의향에 영향을 미친다는 새로운 사실을 규명할 수 있었다.

둘째, 자격증 활용가치의 매개효과 검증을 통하여 기존 연구와의 차별화를 가진다. 즉 자격증 활용가치를 변수로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의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요인을 규명할 수 있었다.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의향에 입학 동기 외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가치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를 이론적으로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이론적 시사점이 있다.

본 연구의 실무적 시사점으로는 첫째, 전공선택 동기 중 사회적 동기가 자격증 취득의향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입시 홍보 및 학생 선발 시 자격증 관련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지방대의 경우 학생 모집과 취업이 어려워지는 현실에서 해당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동기가 강한 학생들을 더 많이 선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서류나 면접에서 성적보다는 관련 학과에 대한 이해도나 자격증에 대한 취득 의향을 중요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과 홍보 시 자격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자격증 취득 과정과 취득 동기를 고취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Yang과 Lee의 보건의료정보관련 학과의 효율적 운영방안 검토 관련 연구에서 입학자원들을 위한 학과 홍보전략으로 유튜브, 밴드, 카카오토티 등 소셜네트워크 시스템의 활용을 제안하였는데[32], 이처럼 소셜네트워크 시스템의 활용을 통해 자격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전략

도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자격증 활용가치 인식에 대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필요하다. 자격증 활용가치 인식이 높을수록 자격증 취득 의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는 자격증 취득이 취업 시 또는 취업 후 얼마나 본인에게 유리한지 잘 모르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입학 후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가치를 선배들의 취업 사례 등을 활용하여 꾸준히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학생들이 자격증 취득 과정에서 중도 포기하는 비율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실제 Yang(2016)은 보건의료정보관련 자격증의 효율적 운영방안 검토에 관한 연구에서 모든 자격증의 공신력과 가치성을 위해서는 자격증 취득의 유의미함을 응시자에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33].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특정 지역의 대학을 대상으로 설문이 진행되어 전체 대학에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2년제 대학과 4년제 대학의 차이점을 규명하지 못한 한계도 있다. 향후 2년제 대학과 4년제 대학을 구분하고 다양한 지역의 다양한 대학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 학과를 대상으로 연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 References

- [1] <https://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
- [2] Byun Eun-Kyung and Park Sung-Hee, 'Effects of Major satisfaction and Employment stress on Depression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5, No. 1, pp. 323-330, 2014.
- [3] Park An-Sook and Kim Hey-Kyoung, 'The Effect of Motivation for Major Choice and Satisfaction in Major on the Adaption of university Life among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7, No. 2, pp. 511-519, 2016.
- [4] Gottfredson, L. 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San Francisco: Jossey-Bass, 1996.
- [5] Lim Mi-Ra and Kim Youn-Min, 'A Study on the for College Choice from Tourism-Related Majors at Vocation School that Affects the Students Satisfaction and Loyalty', *Korea Journal of Tourism and Hospitality Research*, Vol. 27, No. 2, pp. 361-379, 2013.
- [6] Moon Sang-Kyu and Park Sung-Su, 'An Empirical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Employment Outcomes of University Graduates', *The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Vol. 7, No. 4, pp. 45-68, 2017.
- [7] Jin Seong-Hyun and Kim Kyung-Sook, 'The influence of the major choice motivation, satisfaction in major and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on college students: focused on the department of airline service', *The Academy of Korea Hospitality & Tourism*, Vol. 21, No. 3, pp. 303-319, 2019.
- [8] Chung Kyoung-Sup, 'The Acquisition of the National Certificates of Qualification and Tasks - Focused on the University and College Students in the Busan', *Korean Comparative Government Research*, Vol. 13, No. 2, pp. 373-396, 2009.
- [9] Kim Seong-Pil and Lee, Min-Soon, 'Effects of Private Certificate Holder's Motivation for Certificate Affects Career Development and Job Satisfac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ntents*, Vol.16, No.1, pp. 352-361, 2016.
- [10] <https://blog.naver.com/moeblog/222605595097>
- [11]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20812000816>
- [12]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01215&lsiSeq=224107#0000>
- [13] [https://www.kuksiwon.or.kr/infoOpen/view.do?data\\_seq=107](https://www.kuksiwon.or.kr/infoOpen/view.do?data_seq=107)
- [14] <https://www.kuksiwon.or.kr/peryearPass/list.do?seq=13&srchWord=14>
- [15] Kim Bong-Hee and Shin Jeong-Ha, 'The Influence of Major Choice Motivation and Major Satisfaction Degree on Department Adaptation of Mature Learners in the Nurse



- Dept. of College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21, Vol. 7, No. 15, pp. 141-166, 2016.
- [16] Kim Yu-Jeong, Yoo Ha-Na and Park Mi-Jeong, 'Effect of Motive for Major Selection on Major Satisfaction, Campus-life Satisfaction, an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7, No. 10, pp. 261-270, 2016.
- [17] Shin Seung-Ho, Lee Jeong-Won, Kim Chang-Tae and Shin So-Hong, 'The Relationship among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Motivation for Major Selection, Work Values, Major Satisfaction, and Major Commitment',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2, No. 10, pp. 95-107, 2021.
- [18] Chun Tae-Jung and Lee, Keol-Jae, 'The Effects of Major Selection Motivation of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Medical Tourism Related Department on Degree of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Korean Business Education Review*, Vol. 30, No. 5, pp. 217-242, 2015.
- [19] Kim Soo-Young, "A Research on Selective Motives for Specialization and Career Decision of Graduates Majored Social Welfare in University -case of Three Universities in Chonbuk Region", Master's thesis in social welfare in *Won-Gwang University*, 2008.
- [20] Richard M. Ryan and Edward L. Deci,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s: Classic Definitions and New Directions',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Vol. 25, No. 1, pp. 54-67, 2000.
- [21] Jung Song-Yoon, "The effect of major selection motivation major satisfaction and professor-student interaction of university students on their school life adjustment", Doctoral dissertation of *Dong A University*, 2013.
- [22] Lee Jong-ho, 'A Study on job selection reasons and choice motives of major for college students in culinary and food service in Busan', *Journal of Regional Studies*, Vol.19, No.2, pp. 69-85, 2011.
- [23] Shin Jin, "The Effect of College Student's Motivation to Choose a Major on Job Preparation", Master's thesis of *Gachon University*, 2012.
- [24] Han Yae-Jung, "The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gree of Instruction Participation and Major Satisfaction and the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 by the Major Selection Motive and their Work Valuers of university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of *Kyung-Sung University*, 2014.
- [25] Chang Jae-Yoon, Shin Hee-cheon and Lee Jee-Young, 'The Effect of Commitment toward College Major on the Quality of Employment among College Graduates', *Korean Journal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Vol. 20, No. 4, pp. 415-435, 2007.
- [26] Son Eun-Soo and Lee Seung-Hoo, 'A Study on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Major Choice Motivation, Major Immersion,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Preparatory Behavior: Focusing on Cooking and Baking Major in University', *Culinary Science & Hospitality Research*, Vol. 27, No. 6, pp. 65-81, 2021.
- [27] Park Jung-Joon, 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s National Technology of Cook Certificate of Role on the Job Satisfaction -In the context of Food Industry, *Tourism Research*, Vol. 31, pp.149-170, 2010.
- [28] <https://www.q-net.or.kr/man001.do?imYn=Y&Site=Q>
- [29] <https://ko.dict.naver.com/#/entry/koko/da1c715546d64ab5a01bc0bb854ad563>
- [30] Oh Suk-Tae, 'A Study Having the Certifications Students of Majoring in Culinary Arts on the Satisfaction of Class and Preparation for Employment', *Culinary Science & Hospitality Research*, Vol. 23, No. 3, pp. 242-256, 2017.
- [31] Hong Mi-Sook and Kim Yun-Jung, 'The suggest the curriculum reorganization for improving certificate utilization of students

- who are majoring in skin car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8, No. 11, pp. 536-543, 2017.
- [32] Yang Ok-Yul and Lee Yeon-Hee, 'Review of effective management of healthcare information related departments according to the extended period', *Journal of Health Care and Life Science*, Vol. 5, No. 1, pp. 19-27, 2017.
- [33] Yang Ok-Yul, 'A review of healthcare and medical information related certification for efficient management', *Journal of Health Care and Life Science*, Vol. 4, No. 1, pp. 13-23, 2016.